

AUTHOR 이수영 (Sou Young Lee)

TITLE 칼뱅의 성령론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Holy Spirit)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12 no.1 (March, 1994):153-172

들이 그것을 조직화할 수 없고, 언회들과 축체들이 그것을 복사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것을 조제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보내실 수 있다.”^{212b}

우리가 성령은사의 바른 이해와 체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할 때에, 마이클 그린의 말한대로 질서(order)와 자유(freedom)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가 현세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미래 천국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 만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그 몸(Body), 즉 성령이 그의 조화를 다양한 아름다움 속에서 드러내시는 성전에 유입될 때만 성령의 충만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월세 만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가지지 못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시공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충만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의 미래의 첫월부금(first instalment)이다.”²¹³

그리스도의 한 몸 속에서 미래의 보증으로서 성령의 자유로운 능력을 질서와 조화 속에서 맛보는 것—이것이 오늘의 교회와 개개 신자의 이상인 것이다. 성령은사론에 있어서 성경에 일컫힌 고도의 분별력이 요청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즉 내 형제들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 14:39-40).²¹⁴

212) *Ibid.*, p. 9.

213) Green, p. 279.

214) R. C. Sproul은 제1창조가 완성단계에 이르기전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피조물 위에 운행(hover)하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개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자녀들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성화 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다고 했다. 창조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무형제(formless)에 구조를 부여하고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고 어둠을 조명하는, 창조의 질서부여자(Orderer of creation)로 본 것이다. *The Mystery of The Holy Spirit*, pp. 85-86.

갈베의 성령론

이 수 영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조직신학>

1. 시작하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 교의학은 6개의 loci, 즉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성령론이 교의학의 다른 주된 주제들처럼 교의학의 구성적 요소가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종종 전통적 신학에서의 성령론의 부재라는 비판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곧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통적 교의학 속에서의 성령론의 부재의 원인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의 성령론의 부재 혹은 취약성 때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은 갈베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갈베를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며 그가 남긴 신학과 사상의 노선을 가까이 따르고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종종 묻곤하는 성령론에 관한 이러한 비판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갈베의 기독교강요의 전체 80개 장(章) 가운데서 볼 때, 그리스

도의 관한 지식과 그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밀한 역사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3권 1장 외에는 직접적으로 성령론에 할애된 장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외관상 갈뱅에게서 성령론의 위치가 미미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강요 각 장의 제목을 떠나서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제1권에서의 첫부분인 신인식론과 계시론과 성서론 그리고 13장을 전후한 삼위일체론에서, 제3권 전반에 걸쳐, 특히 신앙론에 관련해서, 그리고 제4권의 교회론, 특히 성례론에 관련해서 성령은 비교적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죄의 문제와 그리스도 자체에 관한 언급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제2권에서는 자연히 성령에 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며 기독교강요는 전권에 걸쳐 성령은 결코 소홀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강요에서의 성령에 관한 언급이나 논의의 빈도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다. 그 내용을 검토할 때 우리는 갈뱅에게 있어서 성령론이 약하다는 통념적 사고가 그다지 튼튼한 근거 위에 서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오늘날의 조직신학적 안목에서 볼 때 갈뱅이 뚜렷한 체계를 가지고 성령론을 개진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성령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충실하게 제시하려고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성령의 본질적 존재에 관해서는 고대교회의 전통적 삼위일체론의 틀 안에 성실히 머물면서, 우리를 향한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갈뱅에게서 성령이해는 그의 신학적 사고 전체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으며 그의 신앙이해 속에서 성령이 차지하는 지위는 결정적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갈뱅의 성령론의 기본사고

갈뱅의 성령이해를 상술하기 전에 먼저 그 핵심을 언급한다면, 첫째로 그는 성령을 신적 인격으로서 주장하고 있으며, 둘째로 성령을 모든 신적 사역의 실행적 주체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것은 그의 성령이해가 고대교회의 삼위일체론의 틀 안에서 전통적 사고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번째 것은 그의 성령이해의 특징이기도 하며 기본사고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 사고를 따르는 갈뱅의 견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 주목한다.

“성령은 ...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소개되었다.” (I. xiii, 22).¹⁾

“성령은 언약한 우리 안에서 자기의 사역을 험차게 실현하신다” (II, v, 12).

“성령의 지도가 없으면 교회는 존속할 수 없으므로 지극도 하나님만의 백성 사이에서 성령은 확실하게 계신다” (IV, xix, 6).

갈뱅의 성령이해의 기본사고이며 그 특징이 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귀절은 1권 13장 18절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우리는 이 글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 모든 기독교강요에서의 인용 문들을 김종흠, 신부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의 번역서(성령의 말씀사 열행)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숫자표기의 첫째는 권, 둘째는 장, 셋째는 절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별은 다음과 같다. 곧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시며 만물을 질서있게 배열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으며, 성령님께서서는 그와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I, xiii, 18)

이 말 속에서 갈행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본질을 지니면서도 서로 구별되는 인격적 실체이며, 각각의 고유한 사역 속에서 오직 한분 하나님임을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삼위 간의 관계성에 관한 그의 이해를 가장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초요 기초요 원천이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으로 부터 오는 것이다. 성부의 이 근본적 의지가 없이는 아무 것도 시작될 수 없다. 성자는 모든 것의 지혜요 계획이요 배열이다. 이 아들을 통하여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의 능력과 효력이다. 이 성령의 사역 없이는 아무 것도 실제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성부로부터 말미암고 성자를 통하여 가능해진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한편으로는 삼위간의 관계성을 명시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삼위의 한 분 하나님 되심을 설득력 있게 확증해 주기도 하는 논거가 된다.³⁾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갈행의 신학

2) 삼위간의 관계성과 한 하나님되심에 대한 갈행의 또 다른 표현은 그가 이 기본사교를 구원에 적용시켜 언급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령은 도처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동력인은 하늘 아버지의 지비와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선언한다. 물론 질로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는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얻으셨다. 형상인은 믿음이고 무엇인가? 요한은 아 세가지 원인을 한 문장에 포함시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목적인은 관해서는, 사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인재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같은 곳에서, 다른 세가지도 명백하게 말한다.’”(III, xiv, 17).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며, 질로인은 아들 이신 하나님의 순종이며, 형상인은 성령의 조명한 믿음이며, ‘목적인은 하나

세계 속에서 사실상 배어놓을 수 없는 주된 구성적 요소의 하나님임을 입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의 이해 속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우주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시며, 성부의 선하신 의지와 성자의 지혜와 계획과 실제로 그가 행하시고 이 부신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비로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뜻에서 모든 것은 그의 손에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이러한 결정적 중요성에 대한 갈행의 사고는 그가 신지식론이나 신앙론이나 교회론이나 성배론 등을 다룰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강조됨을 본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연을 통해서나 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총만하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이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참된 신지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속사역을 행하셨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지 않으면 그 인에 주어진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⁴⁾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그들의 머리와 터가 되었다고 해도 성령이 아니면 그 교회가 존속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성령이 아무리 우리 눈 앞에서 행해지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도 성령의 내밀한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가능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그는 역설한다.⁵⁾

3) “우리의 크신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III, xiv, 21).

3) 갈행은 기독교강요 3권의 제6에서부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해진 것들은 성령의 비밀한 역사에 의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4) “성령은 그의 빛에 의해 우리의 지각을 비추시고 말씀과 성배에 더 우리속에 들어올 입구를 주신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말씀과 성배는 귀를

3. 전통적 성령론에 대한 비판과 갈뱅의 성령이해

현대에 와서, 전통적 성령론이 구원론과 교회론의 틀 안에서만 다루어졌기 때문에 창조적, 세계사적 지평이 약화되고, 성령의 활동이 개인의 구원과 성화와 내면적 경건 그리고 교회의 삶의 영역으로 제한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⁵⁾ 이러한 비판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리는 먼저 그러한 비판이 적어도 갈뱅의 성령론에는 해당되지 않는 비판임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과 같은 갈뱅의 말들을 읽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창조하셨다”(I, xiv, 20).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보존될 뿐 아니라, 또한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기 전에 벌써 성령께서 저 혼돈된 덩어리를 돌보셨다...”(I, xiii, 14).

“영원하신 성령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시서 아주 조심스럽게 천지의 혼돈한 물질들을 유지하시며 또한 여기에 미와 질서를 가하셨다.”(I, xiii, 22).

“성령께서는 온 우주에 편재하시어,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만물을 유지하시고 그것들을 성장케 하시며 그것들을

올리고 눈앞에 나타날 뿐이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IV, xiv, 8).

5) 김근진, 기독교 조직신학 III,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p. 61-63 참조.

소생시키신다. ...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들에게 본질과 생명과 운동을 불어넣어 주심에 있어서 확실히 그는 하나님이신 것이다.”(I, xiii, 14).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행상을 닮았던 것도(본체의 유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I, xv, 5).

위의 몇몇 발언들만 보아도 설명이 필요없이 창조적, 세계사적 지평이 약하다는 비판은 갈뱅의 성령이해에 관한 한 근거가 결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갈뱅이 성령의 역사를 결코 신앙과 성화에만 제한시키지 않았음은 그의 성령이해의 기본사고를 보여주는 핵심구절로서 앞서 언급된 기독교강요 1권 13장 18절의 인용문에서 이미 잘 드러났었다. 반복하거나와 상부를 모든 것의 시초요 기초요 원천으로, 성자를 모든 것의 지혜요 계획이요 배열로, 성령을 모든 것의 능력과 효력으로 이해하는 갈뱅의 사고는 그 이후에 통념화된 삼위의 사역에 관한 견해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다. 그 통념적 견해란 삼위의 외향적(경물적) 사역으로서 창조는 성부에게로, 구원은 성자에게로, 성화는 성령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삼위의 각각의 고유한 사역을 구별한 후 다시 삼위간의 상호관계성을 말하기 위해 점유(appropriatio)와 순환(perichoresis)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갈뱅의 사고는 그러한 부적절한 구분과 거주장스러운 개념들을 단숨에 해결한다. 창조와 구원과 성화는 갈뱅에게는 모두가 다 삼위 모두의 사역인 것이다. 즉 성부는 창조와 구원과 성화의 시초요 기초요 원천이며, 성자는 그 모든 것의 지혜요 계획이요 배열이요, 성령은 또한 그 모든 것의 능력이요 효력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갈뱅에 있어서 성령은 창조사역, 구원사역, 성화사역 모두를 감당하며 결실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전통적 성령론에 대한 현대의 비판은 갈뱅의 사고에 관한 한 적절

하지 않은 것이다.

성령의 활동을 교회의 삶의 영역으로 제한하였다는 비판 역시 갈뎡의 성령관과는 무관한 것이다. 갈뎡에 있어서의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직분을 세우시고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들의 말씀 선포와 전도 그리고 성례전 집행을 통해 역사하시면서도, 결코 교회의 울타리와 그 제도 안에서 신자들만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이지 아니하다. 다음의 인용문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간생활에서의 가장 훌륭한 일들에 대한 지식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자들 속에만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다는 발언은 성결의 영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성령의 힘으로 모든것을 채우시고 움직이시며 살리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법칙에 따라 각 종류에 주신 그 성격에 맞도록 하신다.”(II, ii, 16).

“성령께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보다 낮은 정도의 작용을...”(III, ii, 11).

“성령은 성령을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 성령은 성례에 의해 매이지 않으며 세계의식 밖에서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이루실 수 있다.”(IV, xvi, 26-30 사이).

우리는 전통적인 성령론에 대한 현대의 비판 앞에서 그 비판이 갈뎡의 성령이해에 관한 한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갈뎡이 결코 성령의 활동을 개인의 구원과 성화, 내면적 경건과 교회의 삶의 영역에 제한시키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창조적, 세계사적 지평을 상실하지도 않았음을 일단 반증해 보였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의 성령이해가 구원과 성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과 그것이 잘못

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해야 할 줄 안다. 갈뎡은 실제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III, i, 4)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는 성령을 “중생케 하시는 능력의 원천”(I, xiii, 14)이라고 부르며 “성령은 빌어온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창조자이시며, 중생 뿐만 아니라 영생의 창조자”(I, xiii, 14)라고 말한다. 믿음과 구원과 성화를 성령의 주된 사역으로 이해하는 그의 사고를 드러내주는 언급들을 몇몇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성령께서는 선택된 사람들에게 한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며 이 사람들이 특별한 믿음으로 그 용서를 선용할 수 있게 하신다.”(III, ii, 11).

“성령은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드디어 우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신다.”(III, ii, 33).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는 일 즉 믿음을 잉태하고 유지하며 자라게 하고 또 확립하는 일”(IV, xiv, 9).

“성령께서 비밀리에 물을 뿌려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으신다.”(III, i, 1).

“성령은 은밀한 중에 물을 주어, 우리의 의의 색을 듣게 하신다.”(III, i, 3).

“성령께서는 꾸준히 우리의 사악한 욕욕을 태워 버리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렬한 헌신의 불길을 일으키시기 때문...”(III, i, 3).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견 되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부정과 불결을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키신다.”(Ⅲ, iii, 14).

4. 갈뱅의 성령론의 몇가지 주된 관점

우리는 앞서 갈뱅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활동의 지평 속에 들어있음을 예시하였거니와, 그리면서도 그의 성령이해에 있어서 믿음과 성화의 역할과 함께 성령의 주요 역할로서 자주 언급되는 바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의 관계에서의 성령이다.

1) 그리스도와 성령

갈뱅은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를 발견케 하며 그와 연결 시켜주고 그를 통해 주어진 진리를 깨닫게 해주며 그 안에 머물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이임일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듯이,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성령의 사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바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시는 진리이며, 성령이 전하고 누리게 하는 모든 은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인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삼위의 관계성이 갈뱅의 사고를 통해 어떻게 드러남을 본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부의 의지는 근원성을, 성자의 사역은 중심성을, 성령의 역사는 결정성을 지니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갈뱅의 글들 속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밀접한 관계성을 볼 수 있다.

“실로 그 영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파기에 말씀하신 것들을 저들의 마음 속에 넣어 주시며 암시해 주시는 영인 것이다.”(I, ix, 1).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적 교사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I, ii, 20).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자기에게 연합시키는 줄이다.”(Ⅲ, i, 1).

“영의 은혜와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Ⅲ, i, 3).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Ⅲ, i, 3).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에 의해 그에게까지 올라가도록 또한 성령의 비밀한 사역에 의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1562, 12, 27 편지).

“성령의 비밀하시고 놀라운 능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며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동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능력에 참여케 하신다.”(교전 11: 23-26 설교).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하며 우리 안에 모시게 하신다.”(Ⅳ, xvii, 12).

2) 교시문서의 성령

칼뱅의 성령이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의 하나가 계시자, 교사, 교육자문서의 성령이다. 그는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의 가르침을 지칭할 때 종종 성령께서 “선언”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시는 것으로 표현한다.⁶⁾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칼뱅은 성령을 “교사” 또는 “내면적 교사”라고 부르곤 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양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⁷⁾ 깨닫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지각을 계시하시고 마음에 인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믿음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킨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가르치시며⁸⁾ 인도하시고 밀어주심으로⁹⁾ 복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견인케 하신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가꾸시는 이시며¹⁰⁾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지배하시는 이시다.¹¹⁾ 직접 그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자.

“참된 하나님 지식은 그의 선하심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선물이기에, 또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부터만 오기에 우리의 정신은 자연의 안내만으로는 거기까지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행 17:27 주석).

“성령께서 놀랍고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의 귀를 듣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I,

6) I, v, 13; xvii, 12; I, iii, 6; ix, 3 등 참조

7) III, xxii, 10.

8) I, xiv, 3.

9) I, v, 5.

10) IV, xiv, 11.

11) III, iii, 2.

ii, 20).

“우리의 심정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듯이 성령으로 지시하며 굽히며 주관하며 지배하신다.” (I, iii, 10).

“하나님의 은총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그 은총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다. 그러나 이 준비태세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서나 시종일관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음에 북돋우는 심정을 만드시고, 다음에 그것을 함양하며 그 기초를 더욱 강화시켜 전인발발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II, iii, 11).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그들(택하신 자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함양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개조 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 (II, v, 5).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를테면 새로 날 커로운 시력을 얻어, 이전에 눈을 멀게했던 그 찬란한 하늘의 빛을 보게 된다. 또 인간적인 이해력도 아같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드디어 참으로 맛보기 시작한다.” (III, ii, 34).

“성령이 날인하는 일을 받으셔서, 이미 마음에 확신을 심어준 그 약속들을 마음에 인치시며, 마음을 견고하게 확립하기 위하여 보증의 직책을 받으신다.” (III, ii, 34).

“하나님께서서는 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기도의 교사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에 있어서 바를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시며 감정을 조절해 주신다.” (III, xx, 5).¹²⁾

이처럼 성령은 갈뎡에게 있어서 “진리와 허위의 구별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교사”(Ⅳ, viii, 11)이며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가장 훌륭한 인도자”(Ⅴ, viii, 13)로서 이해되고 있다.

3) 모든 은사의 근원으로서의 성령

앞서 갈뎡에게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임을 보았거나와, 이제 믿고 깨닫고 확신하며 변화되고 실천하며 견인하고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등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임이 또한 그의 성령이해에서 중요한 한 면임을 보아야 한다. 이미 삼위일체를 다룬면서 “우리의 창되는 성령의 사역이다. 능력, 성화, 진리,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체의 선이 다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이다”(Ⅰ, xiii, 14) “지혜, 총명, 진리, 용기, 주님께 대한 경외,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지혜, 신중, 용기, 그리고 경건의 영이시다”(Ⅰ, xiii, 16)라고 했던 갈뎡은 다시 성령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하게 되는 기독교강요 3권 1장에서 “간단히 말하면, 성령은 모든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근원이 되는 ‘샘물’”이라고 말한다(Ⅲ, i, 3).

성령은 우리와의 사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 주신다(Ⅲ, i, 2).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 속을 비추시어, 선포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머물게 하시며(Ⅲ, xxiv, 8),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는 되지 않는 일 즉, 신한 것을 따르고 영원한 복락을 추구하도록 충동하신다(Ⅱ, ii, 26).

성령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Ⅲ, i, 3), “사람들

에게 은혜를 시냇물 같이 부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회복하며 강하게” 키우신다(Ⅲ, i, 3). 성령은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사람들을 지배 하시며(Ⅲ, iii, 2), 죄에 대하여 우세하고 드디어 싸움에서 이기도록 신자들에게 힘을 주신다(Ⅲ, iii, 11). 성령은 “우리안에 계시며, 그 힘으로 우리의 정욕을 날로 더 죽이시”는 이시며(Ⅲ, xiv, 9, Ⅲ, xx, 42 참조),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걸으며, 자기를 잊고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신다(Ⅲ, xiv, 9). 성령은 “우리의 마음 속에 확신과 소원과 탄식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타고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생각하게 만드신다”(Ⅲ, xx, 5).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굽히시며 지도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사탄의 모든 전술과 모든 맹목에 대해서 우리가 철대로 굴복하지 않게” 도우신다(Ⅲ, xx, 26). 갈뎡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성령은 하늘나라의 보고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열쇠”
(Ⅲ, i, 4)

“참된 하나님 지식은 그의 전하심으로부터 오는 각별한 선물이기에, 또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부터만 오기에 우리의 정신은 자연의 안내만으로는 거기까지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행 17:27 주석, O.C. 48, 416)¹³⁾

“선택된 사람들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양척가 되었다고 하는 확고한 보증과 날인을 해주심...”(Ⅲ, ii, 12)

13) O.C.는 갈뎡전집(Opera Calvini)의 약어이며 뒤따르는 두 숫자는 첫번 것이 권, 둘째 것이 페이지의 난(본문이 때 페이지마다 좌·우란으로 나뉘어 있음)을 표시함.

“우리가 하나님의 이들과 하나인 것은 그가 우리 안에 그의 본질을 전해주시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가 그의 삶과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선을 전달하기 때문이다”(요. 17:21 주석, O.C. 47, 389).

“성령은 그리스도를 거처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심히 필요한 하늘보화가 그를 통하여 풍부하게 흐르게 하셨다”(Ⅰ, xv, 5).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뢰감을 가지도록 격려하신다. 사실, 그는 기도할 말까지도 알려주셔서 우리가 대담하게 ‘아버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Ⅲ, i, 3).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과 눈에 보이는 성체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당연히 순종해야 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준비시키신다. 끝으로, 성령께서는 저 외적인 말씀과 성체를 우리의 귀로부터 영혼에 전달한다”(Ⅳ, xiv, 10).

4) 교회의 보존자로서의 성령

끝으로 갈뱅에게 있어서 성령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성령의 지도가 없으면 교회는 존속할 수 없으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성령은 확실히 계신다”(Ⅳ, xix, 6)고 말하는 갈뱅에게 있어서 성령은 사역자들을 선택하여 세우시며 그 직분에 권위와 위임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며 유지하시는 하나님이다(Ⅳ, iii, 3; 14; viii, 2). 또 성령은 성체에서 목사가 설명하며 외적인 행동으로 성체를 집행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

는가 하면(Ⅳ, xiv, 17), 사역자들이 전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내면적으로 조망하시고 감동시키신” 하나님이다(Ⅳ, xiv, 11).

5. 평가

우리는 본 소고의 서두에서부터 갈뱅의 성령론에 관해 별다른 비판적 검토 없이 학자들간에 수용되는 통념적 평가에 대해 그 무근 거상과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갈뱅에게 성령론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성령이해 뿐 아니라 그의 신학전체에 대한 무지와 인식부족의 소치일 뿐이며, 그의 성령론은 일부 특정 관점에로의 편향이라는 비판으로부터는 멀리 벗어나 있고, 후대의 성령론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으로부터도 전혀 자유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의 성령이해는 그의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령론적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균형잡히고 총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의 성령이해가 많은 사람에게서 진지한 관심하에 연구되고 마르게 이해되지 못한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는 갈뱅의 성령이해가 보다 더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라며 총체적이고 균형잡힌 성령론이라는 종합적 평가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적 평가를 덧붙이고자 한다.

1) 전통적이면서도 추상화되지 않은 성령론

앞서 이미 언급했지만 갈뱅은 그의 성령이해에 있어서 고대교회와 고전적 삼위일체론의 전통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의 성령의 본질과 본체를 논하는 일에 집중하는 본체론적 성령이해가 지니기 쉬운 약점, 즉 우리의 삶과 유리된 추상적 개념놀이와의 경향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의 성령론은 사변이나 언어의 유희에 흐르지 않고 신자들의 삶과 세계와의 구체적 관계성 속에서의 성령을 말하고 있다.

2) 주지주의로도 도덕주의로도 흐르지 않는 성령론

갈렙은 성령의 역사를 자족 그리고 깊이 있게 계시론, 성서론, 신인식론과 연관시켜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의 성령론은 때 마를 주지주의나 교리주의에 호르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의 신인인식은 어디까지나 이성에서 뿐 아니라 마음에 인쳐지고 실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성령이해의 인식론적 강조는 공동체 차원을 무시하는 개인주의화의 경향을 나타내지도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그의 성령은 교회의 성령이기 때문이다. 한편 갈렙에 있어서의 성령은 인식론적 관점 이상으로 성화론적 관점을 지닌다. 회개, 변화, 중생, 성화에 깊이 연루된 그의 성령이해는 그렇다고 또한 도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의 신학전체가 다른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누구 보더라도 철저히 믿음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중심사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3) 주관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성령론

갈렙은 성령의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역사를 종종 말하며¹⁴⁾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의 내적 사역(내적 조명, 내적 증거 등)을 힘주어 말한다. 예를들면 이런 말 같은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안에서 홀로 자신에 대한 충분한 증인이시지만, 이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인쳐지지 않으면 신뢰를 얻지

14) “그리스도는...우리가 믿음에 의해 그에게까지 올라가도록 또한 성령의 비밀한 사역에 의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1562:12-27 편지, O.C.19, 603).

“성령의 비밀하시고 놀라운 능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며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동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능력에 참여케 하신다”(교전 11:23-26 설교, O.C.49, 802).

못할 것이다. 그 때문에 애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고 생생하게 감동시키셔서 그 애언자들이 위로부터 그들에게 명령된 것을 충실하게 제시했음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1, vii, 4).

그런데 이러한 개개인 속에서의 성령의 작용과 그로 인한 설득과 거기서오는 확신등을 말하다보면 주관주의나 신비주의로 흐르거나 그 비난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갈렙의 사교나 발언들은 그에게 있어서 주관주의나 신비주의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 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실로 그 영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을 저들의 마음 속에 넣어 주시며 암시해 주시는 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인물은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 내거나 어떤 새로운 교리 지체를 날조하여 용인된 복음의 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이 말하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의 마음에 인쳐 주는 데 있는 것이다”(1, iv, 1).

“그러므로 성령을 빙자하여 모든 외적 교리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술한 몽상가들과 환상가들은 잠잠하라. 왜냐하면 누기가 여기 계시하는 철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성령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치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말씀에 대한 멸시를 낳는 영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지각 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며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을 새겨주는 영이라는 것이다”(행 16:14 주석, O.C.48, 378).

“성령은 ... 일종의 감도를 받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신의 위임을 확립하고자 하시는 감도인 것이다. 우리로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사탄의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성령에 기록된 형상대로 인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자신과 다를 수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는 성경 안에서 일단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존속하실 것이다”(1, ix, 2).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진리와 아주 끈게 결속하여 계시므로...”

주님께서는 일종의 상호결속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 그 말씀을 따라 그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로 이것은 사실이다”(1, ix, 3).

93 정임신학강좌 IV

한국교회의 성령론

김명혁

〈역사신학·교수〉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역사를 일명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도들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 말씀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사역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역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를 태동시킨 1907년의 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 사경회 운동이었는데 그 사경회 운동은 말씀운동과 더불어 기도운동과 전도운동과 윤리운동으로 발전했다. 여기서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령운동과 성령론에 대하여 인물들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오순절

윌리엄 블레이크 선교사와 부르스 힌트 선교사는 그들이 공저한 「한국의 오순절」(The Korean Pentecost, The Banner of